

제 12 회 중 국 성균 한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 - CNS0548

한글 성명: 장우호

산	골	마	을	에	서	개	달	은	청	춘	의	참	뜻	
이	세	상	에	서	'점	음'	라	'청	춘'	만	큼	사	람	들
의	심	금	을	물	리	는	단	어	도	없	다	문	학	
작	품	이	나	드	라	마	에	서	그	려	지	는	청	춘
이	야	기	들	은	때	로	행	복	하	고	즐	거	고	,
때	로	분	행	하	고	아	프	다	하	긴	,	청	춘	은
정	해	진	문	후	이	없	는	것	이	다	순	조	로	게
작	사	는	몇	몇	사	람	들	만	우	리	는	특	권	도
아	니	고	또	꼭	아	프	고	상	처	를	받	아	야	만
하	는	것	도	아	니	다								
하	지	만	내	마	음	속	에	청	춘	에	대	한	정	
의	가	있	다	살	에	대	한	연	정	을	가	지	고	
있	다	면	청	춘	을	우	리	고	있	다	고	할	수	
있	다		이	것	은	내	가	한	산	골	마	을	에	서
자	원	봉	사	자	로	수	업	을	했	던	2	주	의	시
간	이	나	에	게	가	르	쳐	준	정	춘	의	참	뜻	이
다	내	가	18	살	이	었	던	해	였	다	18	살	이	라
는	젊	은	나	이	는	흔	히	청	춘	라	연	관	되	지
만	나	에	게	18	살	은	고	민	에	배	바	쳐	청	춘
의	연	정	을	있	었	던	나	이	였	다	그	때	는	수
시	로													

제 12 회 중 국 성균 한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-CNS0548

한글 성명: 장우호

북경대에 합격한 후이었다. 북경대에 꼭
 합격해야 한다는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
 달려왔지만 막상 그 목표를 달성한
 후에 내가 느꼈던 것은 기쁨보다 채움
 속에는 공허함이 더 컸다. 계속 앞만
 보고 힘껏 뛰어다가 겨우 결승선을 통
 과한 느낌이었지만 그 결승선은 어쩌면
 또 하나의 출발선일 뿐이라든가 문득
 깨달았다. 주변 친구들이 대학에 합격했
 다는 기쁨에 적어 마냥 행복해 보였는
 데 나만 앞으로 어디에 갈지 모른다는
 상실감에 사여 물적거렸다. 그때 내가
 머리 물 위에 떠 있는 낙엽라도 같았
 다. 이미 떨어졌기에 다시 나뭇가지로
 돌아갈 수도 없고 너무 가벼워서 물 밑
 으로 가라앉은 수도 없었다. 한 마디로,
 열정을 잃은 채 흐르는 대로만 갔다.
 그러던 어느 날, 나와 다른 친구들이
 다 같이 고향 근처에 있는 산골 마을
 에 가서 거기 의 초등학교에서 이주일¹ 동안

제 12 회 중 국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 CNS 0548

한글 성명: 지우호

만 단 기 자 원 보 사 활 동 은 하 기 로 했 다 .
 목 거 운 집 라 이 부 까 지 등 고 그 초 등
 학 교 에 도 착 했 을 때 마 침 수 업 중 간 쉬
 는 시 간 이 었 다 . 감 의 동 창 문 밖 으 로 머 리
 를 내 밀 어 조 남 스 레 우 리 일 행 을 바 라
 보 는 학 생 들 의 눈 빛 이 아 직 도 생 생 하 다 .
 아 미 들 라 몇 살 차 이 만 나 는 데 다 가
 나 는 꼬 사 로 서 다 른 사 람 을 가 르 칠 적
 이 있 어 서 감 단 에 몰 라 가 는 그 수 간 직
 전 에 만 해 도 목 처 긴 장 했 다 . 하 리 만 가
 가 우 하 기 엔 뭇 지 많 은 주 알 았 던 아 미
 들 의 반 가 운 미 소 를 보 자 나 미 마 음 이
 화 동 했 다 .
 이 즉 일 동 만 나 는 아 미 들 의 이 야 기 를
 많 이 들 으 레 고 해 서 일 부 러 쉬 는 시 간
 에 도 교 실 에 남 아 아 미 들 라 같 이 놀 았
 다 . 가 난 라 어 려 운 삶 의 흔 적 은 아 미 들
 의 옷 에 서 는 몇 복 수 있 었 지 만 그 들 의
 눈 ^빛 에 서 는 복 수 가 없 었 다 . 내 가 처 음 에
 이 산 골 마 을 을 내 려 다 보 면 서 느 끼 던

제 12 회 중 국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CNS0548

한글 성명: 장우호

면민과 동생이 어저면 나의 자복심인
벨이라든 것도 깨달았다.
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이죽일 동안
마이플 옆에만 있다 보니가 생각이 저
절로 바뀌었다. 이 세상에서 내 작은
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핑계
를 대면서 내 열정은 누그러들었다. 하지만
이죽일 동안 대가 깨달은 것은 나의
말과 행동이 힘이 되고 있고 이
모나 넓은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해야
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었다. 마이플과
함께 있었던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길 원
동력을 주는 것은 나에게 삶에 대한 열정을
다시 갖게 되었다.
이죽일의 자원봉사활동을 마치고 나는
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품고 그
산골 마을을 떠났다. 집에 가던 도중에
나는 핸드폰의 메모장에 이런 말을 썼
다. "감명건게 읽었던 작가 사철생의 저
시쓰 명훈에 대하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

제 12 회 중 국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CNS0548 한글 성명: 장우호

있다. '우주의 열정은 인간으로 구현된다'.
 나는 이 산골 마을에서 참 많은 것을
 배우고 갔구나. 나는 삶에 대한 열정은
 피곤한 것 같다."
 어쩌면 책은 책과 드라마를 통해서
 는 제대로 이해한 수 많은 것인지도
 모른다. 자기만의 경험으로 깨닫아야 할
 것이기 때문이다. 산골 마을에서 깨닫은
 책의 참뜻은 나에게 삶의 원동력이
 되어주었다.